

# 메시 올림픽 불참...팀 전력 유지 위해

## 아르헨티나 출전 요청에 바르셀로나 거절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건너뛴다.  
아르헨티나 일간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는 20일(현지시간) 메시가 오는 8월 올림픽에 나설 57명의 예비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FC바르셀로나가 (메시를 올림픽에서 뛰게 해달라는) 아르헨티나축구협회의 요청을 거절했다"면서 메시는 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이 2016~2017시즌 프리메라리가 개막 직전인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만큼 바르셀로나가 팀 전력의 핵심인 메시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코파 아메리카를 건너편 채 올림픽만 나서는 브라질 공격수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게 됐다.  
히비에르 마스체라노(FC바르셀로나) 또한 올림픽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시와 마스체라노는 오는 6월 남미축구연맹(CONMEBOL) 출범 100회를 맞아 특별히 마련된 코파 아메리카에 집중할 예정이다.  
메시가 없어도 아르헨티나의 변명은 화



아르헨티나 일간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는 20일(현지시간) 메시가 오는 8월 올림픽에 나설 57명의 예비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려함 그 자체다.  
57명의 명단에는 이탈리아 세리아 A 득점 부문 23위를 달리고 있는 파올로 디발라(유벤투스·16골)와 마우로 이카르디(인테르나·15골)가 포함됐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의 마티아스 크리시티에르와 앙헬

코레아, 루시아노 비에토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5명 모두 만 23세 이하 선수들이다. 만 25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의 수비수 라미로 푸케스 모리는 와일드 카드로 올림픽 무대를 밟을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는 6월11일 명단을 35

명으로 압축한 뒤 7월4일에 맞춰 최종 엔트리 18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올림픽에서 포르투갈, 알제리, 온두라스와 함께 D조에 속했다. 조별리그를 통과할 경우 한국이 속한 C조팀들과 4강엔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  
/김민근기자

## 오승환, 데뷔후 첫 실점...10일 안타3 볼넷1

미국프로야구(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오승환(34)이 빅리그 데뷔 첫 실점을 했다.  
오승환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MLB 시카고 컵스의 경기에서 8회 팀의 두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해 1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1개를 내줘 2실점을 허용했다.  
오승환은 20일 컵스전까지 7경기에서 나와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경기는 시작부터 꼬였고 2실점을 해야 했다. 평균자책점은 2.08(88%이닝 2실점)이 됐다. 미스터 제로의 명성은 깨졌지만 팀이 승리하며 실점에 대한 심적 부담은 없어졌다. 비로 인해 경기는 3시간 넘게 지연됐다. 길어지는 대기에 투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오승환은 팀이 4-1로 앞선 8회에 선발 카를로스 마르타네즈에 이어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데스터 파올라외의 승부에서 타구를 1루수 방면으로 보냈다. 맏 야망스가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지만 공이 글러브에 맞고 떨어져 내야안타가 됐다.  
후속타자 제이슨 헤이워드에게는 7구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시켜 순식간에 무사 1, 2루에 몰렸다.  
오승환은 다음 타자 벤 조브리스트에게 초구에 직구를 던져 우익수 라인드라이브로 아웃시켰다. 이 사이 2루 주자가 3루까지 달려 상황은 1사 1, 3루가 됐다.  
그러나 결국 앤서니 리츠외의 이어지는 대결에서 오승환은 안타를 맞았다. 7구째 치열한 승부에서 던졌던 체인지업이 공략당해 우익수 방면 직시타가 됐다.  
계속되는 1사 1, 3루에서는 크리스 브라이언트에게 2루수 땅볼을 유도해 1점과 아웃카운트 1개를 맞바꿨고 다음 타자 토미 라스벨라를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 이닝을 마쳤다.  
메이저리그 첫 실점이었지만 2점에 그쳐 다행이었다. 4-3으로 이닝을 마쳐 리드 상황은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는 8회 추가 득점에 성공해 다시 5-3으로 앞서갔고, 9회초 마우리 트레버 로렌탈을 올렸다.  
로렌탈은 삼진 3개로 컵스 타선을 봉쇄했고 세인트루이스는 7승(7패)을 올렸다.  
/김민근 기자

# 이청용 12경기 만에 선발...팀은 맨유에 0-2 패배

## 크리스털 팰리스 3경기 연속 무승...선더랜드보다 승점 9점 앞서 강등은 피해

'블루 드래곤' 이청용(28)이 오랜 만에 선발 기회를 잡은 가운데 소속팀 크리스털 팰리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패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21일 오전 4시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맨유에 0-2로 졌다.  
이청용은 이날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출전 했다.  
이청용이 경기에 나선 것은 지난 2월16일 왓포드와의 정규리그 경기 이후 11경기 만이다.  
오랜 만에 경기에 나섰음에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몇차례 좋은 장면을 연출했다.  
이청용은 전반 9분 윌프레드 자하의 크로스를 감각적인 헤딩 패스로 연결했다. 달려들던 엠마누엘 아데바요르가 골장 원발슛으로 연결했으나 정확도가 부족했다.  
전반 42분에는 역습 찬스에서 상대 오른

쪽 측면을 파고들었다.  
공을 풀고 문전으로 침투, 중앙의 아예바요르에게 패스를 넣어주려 했지만 수비수에 막혀 코너킥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고 후반 15분 조던 머치와 교체됐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이날 패배로 3경기 연속 무승(2무1패)의 수렁에 빠졌다.  
10승9무16패(승점 30)로 16위다.  
하지만 18위 선더랜드(7승9무17패·승점 30)보다 승점 9점 앞서 있어 사실상 강등은 피했다.  
남은 3경기에서 대량실점으로 모두 패하지만 양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한다.  
맨유는 정규리그 2연승을 달리며 막판 순위경쟁에 열을 올렸다. 17승8무9패(승점 50)로 5위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이날 전반 4분 만에 다비안 델리아니의 자책골로 기선을 내렸다. 상대 크로스를 저지하기 위해 발을 뻗

었지만 굴절된 공은 크리스털 팰리스의 골망을 흔들었다.  
주도권을 쥐고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가던 맨유는 후반 10분 마테오 다르미안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다. 다르미안은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가슴 트래핑 이후 왼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에 성공했다.  
한편, 리버풀은 에버턴과의 라이벌 매치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전반 43분 디보크 오리기의 선제골로 포문을 연 리버풀은 전반 47분 마마두 사코의 추가까지 터져 두 점차 리드를 잡았다. 후반전에는 다니엘 스테리지와 필리페 쿠틀루아가 각각 16분과 31분 골망을 갈랐다.  
3연승을 달린 리버풀은 승점 54점(15승9무9패)을 기록 7위로 뛰어올랐다.  
에버턴은 9승14무1패(승점 41)로 11위다.  
/김민근기자

# 여자프로농구 간판 KB국민은행 변연하 선수 은퇴...지도자 연수

여자프로농구를 대표하는 가드 변연하(36·KB국민은행)가 은퇴한다.  
청주 KB국민은행은 21일 '변연하가 은퇴를 결정했다. 향후 학업과 지도자 연수를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변연하는 2015~2016 시즌에 소속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은퇴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부천 KB하나은행에 패해 계획이 무산됐고 이후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변연하는 "선수 생활 지속 여부에 대한 깊이 고민했다. 지금이 팬들에게 성실한 선수로 기억될 수 있는 시점이고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적당한 시기라는 생각에 은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연하는 1999년 데뷔해 그 해 신인상을 시작으로 WKBL 통산 545경기에 출전한 한국여자농구 대표 가드다.  
베스트5에 10회 뽑혔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도 3회 받았다.  
통산 3점슛 역대 1위(1014개), 득점(7863점)과 스틸(843개) 역대 2위, 어시스트 역대 3위(2282개)를 기록 중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 수확을 비롯해 국가대표로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KB국민은행은 2016~2017시즌 청주 홈 개막경기에서 변연하의 공식 은퇴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지도자 연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근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